

‘지역인재 육성’ 기관들 40억 투입한다

한전·한전KPS 등 11개 기관 24.2%·526명 지역인재 채용 채용설명회·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인재 양성 사업 진행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대부분 채용계획은 연기됐지만 올해는 전체 채용인원 24%가 넘는 526명이 지역인재로 채워질 예정이다. 혁신도시 기관들은 채용비율을 늘리고 ‘학점연계과정’과 채용설명회·장학금 등 지역인재를 양성할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지난 31일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따르면 올해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11개 기관은 전체 인원 2166명 가운데 24.2%에 달하는 526명을 지역 출신으로 뽑는다. 지역인재 육성 예산을 세운 12개 기관은 지난해보다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린 40억 8000만원을 들여 지역인재를 키울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 지역인재 육성 예산을 집행한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1.4%(2억여 원) 확대한 12억7000만원이다. 전기공학을 전공한 지역 인재 26명에게는 총 2억1800만원의 등록금과 학습보조비를 지급하며, 전남대와는 한 해 동안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운영한다.

이외 ▲에너지산업 학점연계 100명 양성 ▲지역특성화 50명 교육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연계 현장실습 ▲에너지밸리 재직자 500명 교육 등도 병행한다.

한전 그룹사 한전KDN은 지난해보다 예산을 6배 늘린 7억1000만원으로 잡았다. 올해는 SW(소프트웨어) 교육 선순환 학점 과정 등 총 6건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예산 6000만원을 들여 광주·전남 대학생과 마이스터고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ICT 관련 SW 개발 작품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현황 (단위:명)

기관명	2019년		2020년(예정)	
	전체	지역인재	전체	지역인재
한전	992	217(21.9%)	1500	360(24%)
한전KDN	113	32(28.0%)	135	33(24.4%)
한전KPS	338	86(25.4%)	250	60(24%)
전력거래소	39	11(28%)	24	6(25%)
농어촌공사	276	38(12.8%)	150	36(24%)
농수산식품유통공사	54	13(24%)	40	10(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	3(50%)	8	2(2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9	5(55.6%)	8	3(37%)
인터넷진흥원	24	9(37.5%)	20	5(25%)
콘텐츠진흥원	17	9(52.9%)	13	6(46.2%)
사학연금	15	5(33%)	18	5(24%)

<자료:각사>



올해 나주 혁신도시 기관들은 ‘학점연계과정’과 채용설명회·장학금 등 지역인재를 양성할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혁신도시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전KPS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77.3%(4억여 원) 늘린 9억540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다.

지역인재 예산 가운데 대부분(95.8%·9억1400만원)은 인턴십에 몰렸다. 한전KPS는 동신대·목포대 30명을 포함해 총 150명 규모 자체 인턴십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학기당 50명 규모로 지역대학과 학점인정과정도 운영하며 지역 마이스터고 현장교육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페어데이 스쿨’도 연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예산보다 19.7% 줄여든 1억3000만원으로 전남지역 중학생 대상 ‘KPX 반디교실’과 150명 규모 학점연계 ‘빛가람 오픈캠퍼스’를 진행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들인 예산보다 75.7% 줄여든 4000만원을 들여 오는 8월부터 ‘광주청년드림’ 등 체험형 인턴제를 운영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2배 늘린 5500만원을 운용하며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 패키지(호남권)’ 등을 진행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1억6000만원 예산을 세워 지역 청년인턴 6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연말까지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역대학생과 대학원을 지원하며 지역 융합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광주시 체험형 인턴사업에 참여

하고 호남지역 정보보호 연구회와 각종 관련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전문교육·멘토링을 통해 지원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8700만원을 들여 지역대학생 취업설명회와 현장실습 등으로 지역인재를 만날 예정이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체험형 인턴, 지역아동 열린 강좌, 채용 투어버스 등을 진행한다.

한편 지역인재 육성 예산을 세우지 않은 기관은 우정사업정보센터,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경찰교육원 등 5곳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19에 대한 모든것 안심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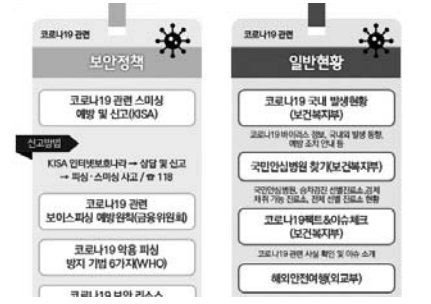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수칙 현황정보 등 공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피해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안심 정보’(kisa.or.kr/covid19)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인터넷진흥원은 정부·기업의 사이버 피해 예방 대책 및 사이버 피해 사례 소개 등 다양한 보안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관련 재택·원격근무 때 사용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할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도 담고 있다.

국내외 코로나19 현황과 ▲국내외 정부 대책 및 지원정책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백트&이슈체크 ▲‘코로나맵’ ‘마스크 알리미’ 등 코로나19 관련 유용한 앱 등 정보도 포함된다.

김석환 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기업·기관이 재택·원격근무를 시행 중인 가운데, 보안 시스



템 및 보안대책이 미흡한 일부 기업의 경우 랜섬웨어 감염, 기업 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발생이 예상된다”며 “진흥원은 앞으로 코로나19 이슈를 약용한 각종 사이버 공격에 신속히 대응할 뿐 아니라 국민이 코로나19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PS, 코로나19 피해 중기 지원 확대

동반성장예탁금 300억 운용

중기 품질 보증교육도 지원

한전KPS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동반성장예탁금’ 재원을 확대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한전KPS는 IBK기업은행과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60억원 규모 중소기업 금융지원 동반성장예탁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나서왔다.

이번에는 광주·전남,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140억원 재원을 추가 출연해 총 300억원 자금을 운용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전KPS는 기업별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0.70%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또 한전KPS는 중소기업의 품질 검교정과 보증교육을 ‘S-슈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일부 계속장비를 무료로 교정해 주고, 다른 전문가에서의 검교정 비용까지 지원한다.

계속장비 검교정 사업에는 12억원, 품질보증교육에는 3억원 등 총 1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한전KPS는 협력업체 경영안정화를 위해 332개 모든 기업에 대해 협력업체 등록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기존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홈페이지, 데이터 품질인증 최고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자사 통합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시행한 데이터 품질인증에서 최고등급인 플래티넘 클래스를 획득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구축·활용 중인 데이터 품질을 심사해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3등급 체계로 인증하는 제도다.

aT 통합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뜻하는 정합률이 99.9943%에 달했다. 이는 품질인증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클래스(99.977% 이상)를 웃돈다.

품질인증을 획득한 홈페이지에는 공사 대표 홈페이지, aT센터, aT회화사업센터 홈페이지가 포함됐다.

이들 페이지는 수급안정과 수출진흥, 유통개선, 식품산업 육성 등 공사 주요 사업 및 농식품산업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T는 공공데이터 개방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김 가공 어가에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전남·충남 등 10곳...에너지 비용 50% 절감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남·충남 김 가공 어가 10곳에 에너지 절감형 김 건조기를 보급한다.

공사는 전남·충남 지자체가 선정한 김 가공 어가 10곳에 ‘히트펌프식 김 건조기’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수산물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공사 첨단기술사업처는 오는 4월부터 수출 실적을 보유한 선정 어가를 대상으로, 45억원의 비용을 들여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고 기술지원 및 하자관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히트펌프를 이용한 건조기는 기존 유류

나 전기 이용에 비해 에너지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외부로 배출해왔던 열에너지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가공방식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공사는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388여 농어가에 4749억원을 투입하며 에너지절감시설을 보급해 왔다. 올해부터는 수산물공분야 어가에도 에너지절감 시설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사 측은 이번 에너지절감 보급사업이 정부 목표인 2024년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과 생산유발효과 1조원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절감시설보급에 참여하는 어가는 설치비용 중 국고 50%·지방비 30%를 지원받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